

'09 일본 주요 농림수산사업*

백 선 혜, 노 호 영, 허 정 회

8월, 9월호에서는 2009년 일본 농림수산예산 개요와 식품 공급 강화 정책 및 식품안전보장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2009년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농산어촌의 활성화, 자원·환경 대책의 추진, 저탄소사회를 향한 산림 자원의 정비·활용과 임업·산촌의 재생 사업,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확립에 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1. 농산어촌의 활성화

도시와의 공생·교류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대책의 전개

주요 목적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지역 활성화 추진역이 되는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어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등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다. 초등학생이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체험을 행하는 「어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의 추진, 민간주체의 공생·교류 국민운동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전개, 기업이나 상점과의 연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와의 공생·교류를 추진한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09년 예산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선혜 연구원, 노호영 연구원, 허정회 연구원이 발췌·번역하였다.(back1514@krei.re.kr, 02-3299-4159)

둘째, 지역 활성화 추진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이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담당할 인재의 확보·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엮고 농촌에서의 도시 인재 활용 등을 추진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축제나 전통문화의 보전·부활 등 농산어촌 농가의 재생을 위한 지원이다. 지역·도시주민, NPO,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살리기, 매력 있는 경관 만들기, 축제나 전통문화의 보전·부활 등 농산어촌 농가의 재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넷째, 중산간지역 등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중산간지역 등 조건 불리 지역에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등 소규모·고령화 농가의 수로, 농로 등의 지역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농지·농업용수 등의 지역자원을 지역단위로 보전하는 노력에 대한 지원이다. 농지·물·환경의 양호한 보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주민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활동과 선진적인 영농활동을 실시하는 지역 등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의 창의성을 살린 노력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다. 영농 체험을 실시하는 교육농장, 지산지소에 대한 노력, 생산기반·생활환경정비 등의 창의성을 살린 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일곱째, 도시농업의 진흥이다. 도시주민의 니즈 등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진흥 및 도시농지의 보전에 관한 지방 공공단체 등의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각종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농·상·공의 연계 추진

농상공연계 추진의 주요 목적은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어업자나 상공업자 등이 1차, 2차, 3차 산업의 벽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서로의 노하우·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양자가 소유하는 강점을 발휘한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개척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정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업화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농상공 연계 노력의 전국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산단계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 1) 지산지소의 추진이다. 학교급식이나 사원식당 등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나 양관점 등에 있어서 지역산물을 판매하는 인숍 운영 등 지산지소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2) 선구적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업이다. 어업분야 이외의 다른

제정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업화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농상공 연계 노력의 전국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과의 연계에 의한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노하우나 저비용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어업의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의 분야에 걸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3) 국산원재료의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다.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국산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식품유통·제조업자 등에 의한 일체적인 노력을 지원한다. 또 식품제조업자 등이 국산원재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둘째, 가공·유통단계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 1)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확대 등의 추진이다. 지역의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농림산업이나 기타 관련 산업 등과의 연계 구축을 촉진하고,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확대, 전문적인 충고를 실시하는 코디네이터 확보 등의 노력을 지원한다. 2) 농촌지역에 대한 공업 등의 도입촉진이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있어서 농상공 연계에 의해 농촌의 강점을 살리는 기업과 농촌의 매칭 촉진 등을 지원한다. 3) 상점가 등과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다면적 연계 촉진이다. 안테나숍이나 농림수산물 직매장 등이 다면적으로 연계되는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부의 상점가와 연결된 새로운 공생·교류 시스템의 구축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육성을 지원한다. 4)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이다. 「국내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에 따라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전개한다. 5) 식품소매 등 상점가 기능의 강화이다. 식품소매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소매업자나 상점가 진흥조합이 추진하는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한 브랜드화나 오리지널 상품의 개발, 상점가 전체의 상품구성 강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식품소매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 니즈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식품판매서비스의 기능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식품소매업자의 식품 제조·가공판매나 산지 직송, 택배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기기의 임대방식에 의한 정비를 지원한다.

셋째, 연구·사업화단계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 1) 사업화·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농상공 연계를 통한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발전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화·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제안공모방식에 의해 추진한다. 2) 산지와 기업의 연계에 의한 혁신적인 신제품 사업화이다. 신제품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등과 함께 농산물 유래 유용물질이나 신소재를 활용한 의약·화장품 등 비식품분야의 혁신적인 신제품 사업화를 추진한다.

넷째, 관련시책이다. 농산어촌의 생산기반이나 생산기계시설, 교류·체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농축산물의 공급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계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생물터전을 지키는 조수애(鳥獸害) 대책의 전개

주요 목적은 조수피해의 심각화·광역화에 대응하여 시정촌이 작성하는 피해방

지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대책사업이 「조수해 방지 종합대책」이다.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에 관련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정촌이 작성하는 피해 방지계획에 근거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조수해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업 단체직원, 시정촌 직원 등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득, 안전하고 효과적인 포획에 도움이 되는 상자 함정 등의 포획기재 도입, 포획조수를 지역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처리가공시설의 정비, 광역지역이 일체가 된 침입방지책의 정비, 개를 활용한 쫓아내기 등 피해방제기술의 도입·실증, 완충대의 설치(소의 방목 등)에 의한 논 유역 습지(里山里地) 정비, 피해대책과 포획조수의 활용 등을 지도하는 인재의 육성이 있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조수피해의 심각화·광역화에 대응하여 시정촌이 작성하는 피해방지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산어촌 만들기의 추진

주요 정책 목표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 방재·감제 대책을 실시, 산지재해에 의한 피해의 경감, 2011년도까지 방재기능의 강화가 강구되고 있는 어촌의 인구비율을 21%(2004년 기준)로부터 대략 30%로 향상하는 것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해에 강한 농촌 만들기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재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응한 방재 정보 기반의 정비와 방재·감제를 핵심사항으로 한다. 또한 환경 보전과 친수면에서의 이활용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연못의 종합정비대책 및 농업용 시설재해에 관련한 인적 피해 방지를 목표로 효율적인 계획·관리·복구 수법의 검토를 실시하는 감제 종합대책 등을 추진한다.

둘째, 산촌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세밀한 치산대책에 의한 안전·안심의 확보이다. 오지산촌 취락주변의 황폐한 보안림에 있어서 배후에 산이 근접해 있는 경사지에 인가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산촌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세밀한 치산대책과 지역주민 등의 참획에 의한 효과적인 삼림정비를 강구하여 산지재해에 의한 피해의 방지·경감을 도모한다.

셋째, 재해에 강한 어촌 만들기의 추진이다. 복수의 어업취락이 연계한 방재관련 시설 등의 정비와 방재정보전달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어업지역의 방재·감소대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고조와 파고의 증대 등에 대해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어항 시설의 기능강화 정비와 해일, 고조에 의해 피해(被災)를 받을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 있어서 지진, 해일, 고조대책을 긴급하게 실시한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해에 강한 농촌 만들기, 산촌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세밀한 치산대책에 의한 안전·안심의 확보, 재해에 강한 어촌 만들기가 있다.

2. 자원 · 환경대책의 추진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대책의 강화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의 CO₂절약효과와 「가시화」를 향한 대책, 농지토양에 의한 탄소의 저장을 높이는 대책, 농산어촌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에너지를 시책횡단적으로 지역전체에서 유효활용하는 대책 등에 의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강화해 저탄소사회를 선도하는 농림수산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CO₂절약효과와 「가시화」를 향한 대책, 농지토양에 의한 탄소의 저장을 높이는 대책, 농산어촌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에너지를 시책횡단적으로 지역전체에서 유효활용하는 대책 등에 의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강화해 저탄소사회를 선도하는 농림수산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림수산분야에서 CO₂ 절약효과와 「가시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농림수산분야에서 CO₂ 절약효과 표시의 국내외 대처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농림수산물, 식품의 생산과정에서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검토하는 기초적 데이터 조사 등을 실시한다. 2)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여 목재이용에 의한 CO₂ 절약효과와 「가시화」를 바탕으로 한 환경공헌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실시한다.

둘째, 지구온난화 방지책의 가속화이다. 교토의정서 6% 삭감 약속의 달성을 목표로 삼림흡수원 대책,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시설원예·농업기계와 어선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지구온난화 방지책을 가속화한다.

셋째, 농지토양의 온실효과가스 흡수원으로서 기능 활용이다. 농지토양은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탄소의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사용 등 탄소저장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실시하는 모델적인 대책을 지원한다. 또한 토양개량·토층개량 등에 의한 농지기반으로의 탄소저장수법을 확립하기 위해 유기질자재의 효율적인 투입공법 등을 검토하는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넷째, 저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농림수산분야의 공헌이다. 이를 위해 1)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의 유효이용의 촉진이다.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삭감계획을 책정하고, 소수력·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정비 및 감축량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온실효과 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2)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대책의 구축이다. 산촌고유 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도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산촌 재생과 함께 삼림자원의 활용에 의한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에 근거해 온난화에 의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산지의 진단과 기술지도, 적응기술의 개발·실증 등의 지구온난화 대응책과 국내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비식품 원료에 의한 국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등 바이오매스 이월용의 추진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해,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목탄 및 목질 펠릿)의 원료생산자 등과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에 의한 생산 제조 제후를 추진하고 비식품 원료를 사용한 국산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대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계 사업의 추진이다. 지역 실태에 맞는 바이오 연료 제조에 관련 농림어업자와 바이오 연료 제조업자가 연계한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한 「생산 제조 연계 사업」을 지원한다.

둘째, 볏짚, 간벌재 등을 활용한 일본형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이다. 이를 위해 1) 소프트 셀룰로오스 수집·운반으로부터 이용까지의 기술 확립이다. 식량자급률이 낮으면서 국내에 있어서 식량 공급과 경합하지 않는 볏짚 등을 원료로 한다. 이를 수집·운반으로부터 바이오연료를 제조·이용하기까지의 기술실증을 일체적으로 실행하여 소프트 셀룰로오스의 이월용을 확립한다. 2) 이용하지 않는 산림 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임지잔재와 간벌재 등 사용되지 않는 산림 자원 활용을 위한 에너지 이용을 목표로 한 제조 시스템의 구축을 실시한다. 3) 저비용·고효율적인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이다. 볏짚 등 작물을 이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바이오연료의 제조·이용시스템의 확립이다. 원료의 조달을 통하여 바이오연료를 제조·이용하기 위한 기술의 실증을 실시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는 수산자원을 통하여 바이오 디젤의 고효율 생산·이용을 실시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실시한다.

넷째, 메탄 발효에 의한 생산물의 유효활용이다. 가축 배설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소화액 등을 지역 내의 원예생산에 유효 활용하는 모델체계의 확립을 진행한다.

다섯째,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이다.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분위기 양성, 수급에 따른 목질 펠릿의 안정적인 공급체제의 정비,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설비의 도입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에 의해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도모한다.

여섯째, 지역의 창의적인 연구를 통한 바이오매스 이월용의 추진이다.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월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에 대해서 복수의 시정촌이 연대한 광역적인 바이오매스 이월용 모델을 구축한다.

일곱째, 지역의 바이오연료 생산·이용에 관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바이오연료 제조·이용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다. 이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해,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목탄 및 목질 펠릿)의 원료생산자 등과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에 의한 생산 제조 제후를 추진하고 비식품 원료를 사용한 국산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대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와 함께 지역관계자의 연대의 장을 제공하는 등에 의해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업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추진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수산업 생물다양성 전략」에 근거해 농림수산업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재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농림수산업 생물다양성 전략」에 근거해 농림수산업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재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 마크(mark)」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공헌하는 국내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촉진을 도모한다.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시한 농림수산업의 이해 촉진이다. 「생물 마크」를 활용해 생물 다양성 보전에 공헌하는 국내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의 촉진을 도모한다.

둘째, 전원·논 지역 습지의 보전이다. 이를 위해 1) 람사르 조약(Ramsar, 국제습지 조약)과 경관법 등에 근거해 지정된 중요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농촌경관 유지 향상을 위한 조사를 통해 보전에 필요한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다. 2) 생태계를 배려한 논 정비 등을 실시한 지역에 있어서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생태계를 배려한 시설 등의 관리를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한층 추진을 도모한다. 3) 농가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보전지표종」을 설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시점을 도입한 기반 정비를 실시한다. 4) 전국단계에서 유기농업의 참여촉진·보급개발에 몰두한다. 이와 함께 땅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면서 유기농업 진흥의 핵이 되는 모델 타운을 육성한다.

셋째, 삼림의 보전이다. 이를 위해 1) 삼림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 상황을 표현하는 지표의 개발과 세계유산 후보지에 있어서의 삼림 생태계의 새로운 보전 관리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삼림 환경의 보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2)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와 생식상황 등의 파악, 생식환경의 개선·보전 등의 모델 구축에 몰두한다.

넷째, 이해(里海)·해양의 보전이다. 이를 위해 1) 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조장(藻場)·간석의 유지·관리 등 환경·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부금제도를 창설한다. 2) 우리나라 최남단의 오키노토리(沖ノ鳥) 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동식물의 생육 장소가 되는 산호의 증식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수산자원의 회복·관리를 추진한다.

다섯째, 숲·강·바다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추진이다.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배후지의 삼림과 하천 유역에서의 양식종류의 공급·탁수의 완화를 위한 어장 보전에 이바지하는 숲 만들기를 진행시킨다.

여섯째, 농림수산업의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이다. 환경 보전형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농림수산업관련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지표와 그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3. 저탄소사회를 향한 산림 자원의 정비·활용과 임업·산촌의 재생 사업

조건불리 미정비 산림의 조기 해소 등에 의한 산림 흡수원 대책 추진

대책의 주요 목적으로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산림흡수 근원대책의 한층 더 높은 추진 목표로 간벌 등의 산림 정비가 어려운 조건 불리 산림의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 니즈를 근거로 아름다운 산림 만들기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건 불리 산림 등의 해소 긴급 대책이다. 이를 위해 1) 공적 주체로의 정액조성에 의한 조건 불리지의 미정비한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해소를 도모한다. 2)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간벌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을 도입한다. 3) 간벌의 추진에 불가결한 도로망의 정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시킨다. 4) 현장실태에 따른 유연한 조성을 실시한다. 5) 산촌지역에 있어서 세밀한 치산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산림소유자 부담 경감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간벌 등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산림소유자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간벌에 힘쓰는 사업체 등을 지원한다. 2) 의욕적인 사업체의 대책을 조장하여 간벌량의 확대를 도모한다. 3) 고성능 임업 기계의 도입과 도로망의 정비를 진행시킨다. 4) 간벌재 등의 이용을 추진한다.

셋째, 아름다운 산림 만들기 추진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2007년에 설립된 「아름다운 산림 만들기 전국추진회의」와 각 지역에서 나서고 있는 민간 추진 조직과도 제휴를 도모하면서, 간벌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의 형성과 현장으로의 움직임 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1) 부재촌 산림소유자로의 움직임을 강화한다. 2) 기업과 NPO 등의 산림 만들기 활동의 지원이다. 3) 지역 산림 만들기의 추진을 맡게 되는 임업후계자의 확보이다. 4) 국유임야의 이용에 의한 산림환경교육의 추진이다.

넷째, 「아름다운 산림 만들기」를 목표로 국민 니즈를 바탕으로 한 산림 만들기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화분(花粉)발생원 대책과 산림병해충, 조수피해대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을 통하여 열대 지역주민의 산림경영으로의 참가지원과 보급·지도원의 육성 등을 실시함에 의해 위법벌채대책을 추진한다. 2) 산림감소대책의 구체적 활동지원과 위성화상 등을 활용한 산림감소·열(劣)화 파악기술의 개발, 인재육성 등에 힘쓴다.

대책의 주요 목적으로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산림흡수 근원대책의 한층 더 높은 추진 목표로 간벌 등의 산림 정비가 어려운 조건 불리 산림의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한다.

새로운 삼림경영정책의 확립을 목표로 한 대책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향후, 인공림 자원이 주벌기(主伐期)를 맞이함에 맞추어 주벌·갱신에 따른 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임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향후, 인공림 자원이 주벌기(主伐期)를 맞이함에 맞추어 주벌·갱신에 따른 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임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삼림시업을 집약화하여 삼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사업체의 육성을 진행하여 국산재의 안정공급체제를 확립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임업경영 안정을 목표로 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1) 삼림 자원의 순환 이용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다. 주벌수입과 저비용 조림·보유 등에 따라 임업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실증을 실시하여 주벌기를 준비함에 있어 임업경영의 참모습을 검토한다. 2) 경영규모의 확대 등에 의한 경영기반의 강화 촉진이다. 임업 경영체·사업체에 의한 시업·경영의 집약화, 임업의 취득에 따른 경영규모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이용간벌에 의해 삼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 경영체·사업체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1) 삼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 경영체·사업체를 육성한다. 2)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면적확대이다. 시정촌, 임업사업 등으로 구성된 집약화촉진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면적 확대를 도모한다. 3) 저비용·고효율인 작업 시스템의 정비·정착이다. 삼림시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로망과 고성능임업기계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작업 시스템의 정비, 정착 등을 추진한다.

셋째, 「녹색 고용」 등에 의한 후계자 육성이다. 임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작업에 필요한 저비용 작업시스템 등의 기술에 이를 때까지, 신규취업자에게로의 연수를 지원함에 의해 후계자 육성·정착을 진행시켜 국산재 안정공급을 추진한다.

수급변화에 대응한 목재산업구조 확립과 국산재 이용확대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국산재료의 원료전환과 생산품목의 전환에 의한 목재 산업구조의 재구축과 원목의 품질의 수요자 니즈에 대응한 제품 공급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국산재료의 원료전환과 생산품목의 전환에 의한 목재 산업구조의 재구축과 원목의 품질의 수요자 니즈에 대응한 제품 공급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국산재 이용의 의의 계발, 보급을 추진하고, 국산재 이용의 확대에 힘쓰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목재산업 종합대책이다. 이를 위해 1) 국산재료의 원료전환과 중소공장과 핵심공장의 제휴에 의한 가공유통체제의 구축이다. 2) 주택분야에 있어서의 지역재 시장점유율 확대이다. 3)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와 안정 공급체제의 확립이다. 4) 목재 이용에 의한 환경공헌도의 정량적 평가수법의 구축이다. 5)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목재 이용의 추진이다.

둘째, 선진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제조시스템 구축이다. 임지잔재나 간벌재 등의 미이용 삼림 자원 활용을 위해 선진적인 기술에 의한 목질로부터의 에너지와 원료의 제조 시스템 구축을 행한다.

셋째, 위법벌채대책이다. 위법으로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고, 시장에서 합법성 등의 증명된 목재 등이 한층 더 높게 평가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사외전계로의 삼림자원의 보전·활용에 의한 산촌재생 시스템의 구축

이 대책의 주요목적은 산촌이 가지는 환경, 교육, 건강면의 기능에 착안해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지원을 집약하는 센터 기능을 창설하고, 삼림 자원의 보전·활용에 의해 산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대책의 구축이다. 산촌고유의 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기능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자본을 포함하는 사회전체의 협동에 의해 산촌의 재생과 삼림 자원의 활용에 따른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공급·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이다.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공급·활용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도로망을 정비하고, 간벌 등의 삼림 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저리인 운전자금의 유통이다. 칩, pellet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칩 등을 제조하기 위한 간벌재 등의 소재생산 또는 인수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해 소재 생산업자, 칩 공장 등에 대해 저리인 운전자금을 유통한다.

지역의 안전·안심의 확보를 목표로 한 치산대책의 추진

이 대책의 주요목적은 근년의 국지적인 호우의 빈발과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산지 재해의 발생을 근거로 하여 주민참가형의 선구적이며 종합적인 감재대책 등의 「희생자 제로」를 목표로 효과적·효율적인 치산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안전·안심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주민 등과의 협동에 의한 선구적이고 종합적인 감재대책의 추진이다. 중요도에 따른 하드대책과 경계피난체제의 정비 등의 소프트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재해감재계획」을 국가·도도부현이 시정촌, 지역주민과 협동하여 책정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의식을 높여 주민참가형의 선구적이고 종합적인 감재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산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치산대책의 추진이다. 세밀한 치산대책과 효과적인 삼림정비를 강구하여, 산지재해에 의한 피해 방지·경감과 수원림의 정비 등을 촉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대책의 구축,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공급·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저리인 운전자금의 유통이 있다.

이 대책의 주요목적은 주민참가형의 선구적이며 종합적인 감재대책 등의 「희생자 제로」를 목표로 효과적·효율적인 치산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안전·안심의 확보를 도모한다.

셋째, 재해에 강한 삼림 만들기에 의한 유목대책의 추진이다. 유목재해의 발생이 염려되는 유역에 있어서 치산사업, 사방사업의 연계에 의한 일체적이고 집중적인 유목방지대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유목 재해 방지대책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사(飛砂)와 고조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경감하는 해안방재 숲 등의 보안림에 있어서, 삼림조성에 방해가 되는 유목 등의 제거 대책을 실시한다.

넷째,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 내륙지진에 의한 대규모 산지 재해로의 대응이다. 2008년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 내륙지진재해에 의한 산지 재해 중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 대해서 민유림 적합 치산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치산 극심 재해대책 특별긴급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과 안심을 확보한다.

다섯째, 삼림관리국에 의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실시이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 피해 개소의 조사, 재해복구대책에 대한 조언을 행할 전문가의 파견 등 삼림관리국에 의한 도도부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신속·원활히 실시한다.

4. 미래에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수산업의 확립

에너지 절약과 구조개혁의 추진에 의한 어업경영 체질의 강화와 후계자 육성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절약형 어업으로의 전환과 수익성 향상 대책으로의 지원 등 어업경영의 체질강화 도모, 예상치 못한 어업 재해 등에서도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절약형 어업으로의 전환과 수익성 향상 대책의 지원 등 어업경영의 체질강화 도모, 예상치 못한 어업 재해 등에서도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어업공제에 따라 가입하기 쉬운 구조 마련, 경영개선 대책의 지원이나 인재의 육성·확보, 타 업종의 노하우 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육성, 어선의 안전조업대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산업 체질강화의 종합적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에너지 절약·노동력 절감 등에 의한 연안 어업 등의 수익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업경영 체질강화 대책사업, 에너지절약 추진 협업체 활동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 휴어·감선 등 지원 강화이다. 휴어, 감선 등의 촉진과 에너지 절약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이 있다. 3) 어선 및 어업 구조개혁 프로젝트이다. 어선 및 어업 개혁 추진 집중 프로젝트의 실시 등에 의해 한층 더 에너지 절약과 수익성 중시의 조업·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엄격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4) 어업의 수익력 강화를 위한 시설 정비이다. 산지 판매력의 강화, 연유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시설(연유 탱크, 선박 급전(給電) 시설 등)의 정비와 기존시설의 개축 등에 의한 어업의 수익력 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후계자의 육성·확보이다. 이를 위해 1)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어업공제 가

입 촉진이다. 2) 어협계통의 경영개선 촉진·지원이다. 3) 어업경영 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수입 변동에 따른 어업경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그 경영개선을 떠받치는 「어업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한다. 4) 어업으로의 신규 취업·신규 참여 촉진이다. 어업 취업정보의 제공, 취업 준비 강습회와 취업상담회의 개최, 취업에 필요한 실무연수 충실 등에 의해 어업에 취업하기 위한 각 단계에 따른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5) 어선의 안전조업대책이다. 각 지역에 있어서의 리더를 중심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추진과 서바이벌 훈련 강습회의 개최, 어업자가 착용하기 쉬운 구명조끼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가공·유통·소비대책의 강화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산지 판매력의 강화, 수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걸친 품질·위생 관리체제의 구축 등에 의해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지판매력의 강화이다.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슈퍼·상사 OB 등의 판매 프로)의 노하우·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판매 전략의 책정·실행, 신규 판로의 개척에 힘쓰는 어업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

둘째, 국산생선의 직접 거래를 추진하여 산지와 소매업자 등의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직접 거래를 지원한다.

셋째, 가공원재료 이용의 추진을 통하여 지금까지 충분히 이용되지 않았던 국산 생선을 유효 활용하는 모델적인 대책을 지원한다.

넷째, 수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통한 품질·위생관리체제의 구축이다. 어선, 시장, 가공장 등 수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통한 HACCP 수법의 도입이다. 또한 구미 등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수산가공장 등으로의 HACCP 수법 도입을 지원한다.

다섯째,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활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계발이다.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활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계발을 도모하는 일환으로서 소비자에 대해 수산물 먹는 방법 제안과 수산업에 관한 이해 촉진을 도모한다.

자원 관리·회복의 추진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수산물의 안정공급에 공헌하는 신기술의 개발, 상업 고래잡이 재개를 목표로 한 조사, 과학적 지견(知見)에 근거한 자원 관리·회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원 회복 계획 등의 추가적인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자원 관리 및 조사의 착실한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휴어·감선 등 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해 1) 「어획노력량 삭감 실시계획」,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산지 판매력의 강화, 수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걸친 품질·위생 관리체제의 구축 등에 의해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수산물의 안정공급에 공헌하는 신기술의 개발, 상업 고래잡이 재개를 목표로 한 조사, 과학적 지견에 근거한 자원 관리·회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자원관리 실시계획」의 확실한 실시에 필요한 휴어 등의 조치에 대하여 휴어기간 중의 어업경영 유지, 어구의 개량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 조성한다. 2) 자원수준에 알맞은 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어선에 대하여 감선의 촉진을 조성한다. 3) 자원회복을 도모하면서 에너지절약형 어구 개량 등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해 조성한다.

셋째, 지속적인 양식생산과 양식생산물의 안정공급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1) 양식의 비용 절감, 안정생산을 목표로 한 기술의 개발·보급이다. 2) 양식생산기술의 개발이다.

넷째, 미래를 개척할 신기술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1) 어선 등의 에너지 절약화, 안전 확보를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이다. 2) 수산 분야의 지구온난화대책, 바이오매스 자원의 이활용 기술의 개발이다.

다섯째, 참치 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참치류의 인공 종묘에 의한 신규 양식 기술의 개발이다. 2) 소형 참치의 유효이용 모델의 실증과 흠다랑어 양식효율화 기술의 개발이다.

여섯째, 상업 고래잡이 재개에 대한 대책이다. 고래류의 자원 조사 및 국내에 유통하는 고래고기의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매년 심해지는 고래류 포획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일곱째, 어장유탁(油濁)피해의 대책이다. 원인자(原因者)가 불명인 유탁에 의한 피해 어업자에 대한 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원인자가 판명되고 있는 유탁사고에 대하여 어업자가 실시한 방제·청소작업의 비용을 지원(支弁)한다.

여덟째, 산호초 보전의 대책이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요한 거점인 오키노토리(沖ノ鳥) 섬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산호 증식기술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묘생산, 증식기반과 효율적인 이식기술 등 일련의 산호 증식기술을 개발한다.

어항·어장·어촌의 종합적 정비, 다면적 기능의 발위

주요 목적은 국가에 의한 직할 어장 정비를 한층 더 추진함과 함께 생산유통기능의 강화, 방제·감제 대책 등에 의한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 만들기, 어업자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환경·생태계보전활동과 외딴섬의 어업재생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원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어장 정비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앞바다(沖合)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국가의 직할 어장 정비를 한층 추진함과 함께 새로운 어종·해역사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 어장과 어항의 일체적인 목표인 수역 환경 보전대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저질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양식 해역의 개선을 도모한다.

둘째, 산지의 생산 유통 기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어장으로의 이동이나 탐색에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어장 정비의 추진, 산지에 있어서의 생산 유통 기능의 강화,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 만들기의 추진, 다면적 기능의 발위 촉진이 있다.

필요할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조업에 이바지하는 부어초(浮魚礁)의 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 만들기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양식어장 등에 수질 개선책으로서 어업 촌락 배수 시설에 자외선 조사(照射) 장치 등을 설치하고,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시설정비를 추진한다. 2) 지역의 창의연구를 살린 활력 있는 어촌 만들기를 지원한다. 3) 어업자의 공동 이용에 관련 되는 시설 정비에 대해서 광역적인 이용에 관한 시설과 조건불리지(條件不利地)에 있어서 시설 정비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4) 복수의 어업 취락이 연대한 방재관련시설 등의 정비에 의한 어업 지역의 광역적인 잠재력 향상을 추진한다.

넷째, 다면적 기능의 발휘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조장(藻場)·간석의 유지·관리 등 환경·생태계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부금 제도를 창설한다. 2) 외딴섬 어업의 재생에 몰두하는 어업취락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하고 활동 내용과 효과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9년도 농림수산업예산의 골자」, 2009.